

## 빛더미 F1 경주장 74억원 추가 투입

1.2km 연장 '듀얼 서킷' 추진  
전남도 재정압박...타당성 논란

전남도가 F1경주장 서킷 중간에 7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1.2km 연장의 서킷을 설치해 '듀얼 서킷'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5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가 전남도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불러온 F1대회 책임소재를 놓고 박준영 전 지사 등 핵심인사들을 고발한 상태에서 또다시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자동차 동호회 경주, 중소규모 자동차 경주대회, 자동차 성능시험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5.615km 길이의 F1경주장 서킷을 3.045km의 A서킷, 3.673km의 B서킷으로 분리하는 'F1경주장 듀얼 서킷 구축공사'에 오는 2017년까지 68억원을 투입한다.

이 공사가 끝나면 경주장 사용일이 연간 300일에 근접하는 것은 물론 하루에 두 개의 경주대회, 이벤트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어 수익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또 전남도가 기업도시 삼포지구의 F1경주장 주변 부지 99만여㎡(30만평·1단지 4만평)를 활용해 튜닝 및 고성능 차부품 인프라를 구축, 국내외 자동차 튜닝부품 업체 100여개를 유치하는 사업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주로 F1경주장의 외부 분야에 해당하는 3.045km의 상설트랙을 민간 기업이나 이벤트업체에 주로 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8752억원이 투입된 F1대회와 관련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F1 경주장에 대한 시설비는 물론 관리운영비 투자가 날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F1 대회 없이 경주장 가동으로

■ F1 경주장 듀얼서킷 설치계획도

FORMULA1  
주행거리 5.615m  
코너 18개소



A 트랙  
주행거리 3.045m  
코너 10개소

B 트랙  
주행거리 3.673m  
코너 14개소

지난해 5억원의 수익을 거둔 반면 전남도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는 F1경주장 카트경기장 피트빌딩 증축공사(6억6900여만원) 등 F1경주장의 시설 보수 및 증축 등으로 모두 23건의 공사·물품·용역을 발주해 24억4800여만원을 썼기 때문이다.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경주장으로 인해 전남도의 재정부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경주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또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킷(5.615km), 스탠드(11만8351석) 등 주요시설과 카트경주장,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로 구성된 F1경주장을 건설하는데 국비 728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 도비 3447억원 등 모두 4285억원이 투입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재건축 아파트 분양 비리 ▶6면  
박물관·미술관 감성여행 ▶18면



"우리 이제 여고생 돼요" 4일 발표된 광주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동아여고로 배정된 신입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예비소집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KTX호남선 개통 또 연기되나

서대전역 경유 갈등으로

6일 예정 노선결정 미뤄질 듯

오는 6일로 예정됐던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송정)노선 최종 결정일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4일 "국토부가 코레일에서 서대전역 경유 내용을 담아 지난달 6일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종합운

영계획'의 승인을 오는 6일에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싼 호남-대전간 노선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통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계획을 제출한 이후 1개월 내에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승인을 받게 되면 코레일은 요금 및 운행시간표를 관보에

고시하고 개통 1개월 전부터 인터넷 예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새마을호 등 연계 열차 운행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계획 승인이 늦춰질 경우에는 나머지 일정들도 연기되면서 KTX 호남선의 개통일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미 3월 개통에서 4월 개통으로 개통시점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국토부의 짚은 개통일 연기로 호남-대

전간 갈등만 확산한다는 점에서 낙후한 호남권 활성화라는 본래 고속철의 건설 목적에 맞게 조기 개통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호남고속철도 문제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그 전에 합의가 안되면 호남고속철도 문제를 포함해 업무보고를 하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의 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우윤근 "내년 총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부치자"

새정치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4일 이날 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 개헌 논의에 착수한 뒤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5면>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말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

통령에 대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중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세계 개혁문제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법안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법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clickkk.com

### 분양가 상한제 적용 3.3㎡당 700만원대!

#### 북구의 중심-대광로제비앙

단지내에서 모두 해결되는 '원스톱-라이프' 를 갖춘 명품아파트

하나 명품아파트가 드리는 명품 EVENT

모달하우스 방문고객에 추첨을 통하여 'CS 명품백' 을 드립니다. 그 외 다양한 상품들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둘 주택전시관 오픈 3일간 사은품 증정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신 고객께 라면1박스를 드립니다. (선착순)

2월 6일 (금) 오픈

---

대광로제비앙 프리미엄 특권 5문의

- 교통특권: 서광주IC, 용봉IC 3분거리 등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 교육특권: 하백초, 고려중·고, 국제고, 중앙여고, 경신여고, 전남대 등 명문대학
- 생활특권: 유럽형 로드샵 고품격 상권형성 (128㎡ 스트리트형)
- 힐링특권: 매곡산 동산로 5분, 중외공원, 용봉재 등 365일 자연힐링
- 문화특권: 국립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광주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

# 364-3000

80㎡A 187세대, 80㎡B 26세대 총 213세대 명품 아파트

대광로제비앙 주택전시관 위치도

(주)국보 새 (주)대광건설 (주)키움